

[사회]

“의료광고 심의받기 힘드네”

기간 길고 심의비 비싸...광주·전남 병원들 불만

지난 4월부터 의료광고 규제를 더욱 강화한 의료법이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광고 심의 절차의 문제점과 심의 기준·원칙이 아직까지 모호해 병·의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병·의원에 따르면 4월부터 허용된 의료기관 광고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하는 병·의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의 기간이 길고 ▲만족하지 않은 심의 비용 ▲세금계산서 미발행 ▲심의기준 모호 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각종 홍보성 플래카드·리플릿·신문광고 제작을 하기 위한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지부 위탁 심의기관인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대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협회 세 곳이 전국 의료기관의 광고를 모두 심의하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로 심의기준에서 정한 최대 심의기간 한 달을 넘겨도 결과가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행사가 끝난 뒤 행사 홍보물 심의 결과가 나오는 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들은 아예 광고 심의를 포기하고 홍보물을 게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5월 일부 홍보물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고소연했다.

상무우리병원 관계자는 “심의기준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담당자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어 이를 문의하기 위해 의사협회에 하루에 2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통화를 하지 못했다”면서 “심의기준과의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토로했다.

심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리플릿

뿐 아니라 병원 소식지 등 각종 인쇄물·현수막·전단지·옥외광고·신문광고 등 심의대상이 되는 매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매체에 따라 심의 비용이 5만~20만원까지 들어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간이 영수증으로는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의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심의위원회 측은 “시도 지부에 심의 업무를 넘기는 것은 실무진의 입장에서 대환영이지만 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가 심의를 맡고 있는 지금도 기준이 세 기관마다 다르다고 불만이 높는데 기준 통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면서 “다음달 초까지 인터넷 신청·문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심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심의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청소년 페스티벌 열기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07 광주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에 참석한 1천여 명의 시민·청소년들이 13개 팀의 열띤 경연과 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에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문 분야 소송에 외부 전문가 참여

대법원은 의료·지적재산권 등 전문 분야가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심리위원은 소송에서 설명·의견 서면을 내거나 변론·검증기일 등 각종 기일에 출석해 설명·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당사자나 증인·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다. 심리위원의 설명·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2년마다 전문가를 물색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현재 건축·토목·의료·지적재산권·과학기술·환경·경제·기업·부동산 분야에서 980명(중복 후보 제외시 964명)이 등록됐다.

연합뉴스

대학생 취업 준비 학원비 월 28만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원 비용으로 월 평균 28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월7일~7월4일 대학생(대학교 3·4학년, 전문대 2·3학년) 3천7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28만원의 학원비용을 지출했다. 계열별로는 예체능 계열 대학생이 3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이러 ▲인문계열 31만원 ▲고육계열 29만원 ▲자연·공학계열 27만원 ▲사회계열 26만원 ▲의학계열 22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학생들은 또 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 자격증 2.8개, 학점은 3.7점(4.5점 만점 기준) 이상을 꼽아 한다고 응답했다.

취업을 위한 애로사항으로는 ▲어학실력(17%)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술(16%) ▲일 경험(12%) ▲출신대학(10%) ▲자격증(10%) 등이다.

연합뉴스

KT·KT&G 등 민영화 된 6개사 직원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적용

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53개 정부관리업체(공기업 등) 가운데 민영화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된 6개 업체를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

특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인 '정부관리기업체' 임직원도 뇌물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KT&G)와 한국전기통신공사(KT), ㈜국정교과서(㈜대한교과서), ㈜한국

종합화학공업(㈜한국화학) 등 민영화된 4개 회사가 특가법 뇌물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농협과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흡수된 축산협동조합중앙회와 농지개발조합연합회는 뇌물죄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들 6개 업체 임원 및 간부 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으로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종래 국가의 실질적 지휘·감독이 미치지 못해 해석돼 왔고,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개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얼뜨기 살인범'

형량·감형 자문했다가 탐문수사에 걸려 덩미

주변 사람들에게 형량과 감형 여부 등을 자문한 '얼뜨기' 강도 살인범이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덩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식품판매점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최모(37·광주시 남구 방림동) 씨를 강도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에 광주시 남구 방림동에 있는 두부·국수 판매점에서 주인 노모(46)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30여 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사업 실패로 7천만원의 빚을 지자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노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절친한 친구들에게 '살인범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자수할 경우는 형을 얼마나 감경하는지' 등을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북부경찰 강력팀 박모(37) 경장에게 자문을 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최중형 기자 galee@kwangju.co.kr

흐르는 '땀방울' 8월 20일 (음 7월 8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구름 많음	24~33℃
포항	구름 많음	24~32℃
수원	구름 많음	24~30℃
대전	구름 많음	22~32℃
대구	구름 많음	22~32℃
부산	구름 많음	23~35℃
제주	구름 많음	22~32℃
서울	구름 많음	22~32℃
인천	구름 많음	23~32℃
안동	구름 많음	22~35℃
충청	구름 많음	23~33℃
전남	구름 많음	22~32℃
전북	구름 많음	23~32℃
경남	구름 많음	22~32℃
경북	구름 많음	23~33℃
충북	구름 많음	22~32℃
충남	구름 많음	23~33℃
강원	구름 많음	23~33℃
제주	구름 많음	23~33℃
제주	구름 많음	23~30℃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북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6:11 썰물 < 11:27
19:00 썰물 < 23:57
여수 밀물 < 00:27 썰물 < 06:36
13:10 썰물 < 19:05

▲해돋이 05:55 ▲해질 19:16 ▲달돋이 12:40 ▲달질 22:42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날씨						
최저/최고	24/32	24/31	24/31	23/32	24/32	24/31

종교계까지 '가짜 학력' 충격

지광스님 고백...오미희·강석씨도



<지광 스님>

불교계에서 '도시 포교'의 선화를 일궈낸 서울 능인선원(강남구 포이동)의 원장 지광(智光)스님이 지난 18일 "서울대에 입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광스님은 서울대 공대를 중퇴한 해직 언론인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 같은 경력은 1984년 서울 강남에서 신도 7명으로 출발한 능인선원을 신도 25만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도심 사찰로 성장시킨 배경이 됐다.

지난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과소했던 학력 문제를 밝히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최근 허위 학력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것을 보면서 이bane야말로 이 문제를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969년 서울고를 졸업했으나 건강이 나빠 대학 진학을 포기했으며, 1976년 한국일보 기자 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력서를 제출할 때 고교생배의 '조인'에 따라 서울대 공대를 중퇴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우 오미희(49)와 방송인 강석(55)의 학력도 도마에 올랐다. 청주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희는 18일 "학교를 다 못 마쳤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빠서 졸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강석(본명 정영근)씨와 관련, 학교 측은 "연세대 학적을 가진 정영근씨는 모두 4명이지만 강석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은 없다"며 "교무처는 강석씨가 연세대에 입학한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연합뉴스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모디쉬갤러리 3층 특별전

30% 할인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062-350-3001-2 금호빌딩 3층 062-350-8774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CALL 센터 담당자입니다.

무선기재, 무선, GPS기능,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KT파워텔 062-526-0130